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당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11. 30.(목) 11:00 < 12.1.(금) 조간 > 배포 2023. 11. 30.(목)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다

- '23.3분기 누적 설비투자는 글로벌 고금리 및 불확실성 증가로 다소 부진
- '24년 업종별 핵심 투자 프로젝트 선정, 「산업투자전략회의」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1월 30일(목) '10대 제조업 주요 기업 투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①'23년 10대 제조업 설비투자 동향, ②기업투자 애로 건의, ③'24년 설비투자 활성화 지원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산업부가 연초에 제시한 10대 제조업의 100조 원 설비투자 계획을 점검한 결과, 3분기 기준으로 약 66%가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는 킬러 규제 혁파, 특화단지·국가산단 지정,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해왔다. 그러나 글로벌 고금리, 불확실성 증가 등 투자 여건이 악화되면서 기업의 설비투자 이행이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올해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설비투자를 일부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외투 신고금액(누적, 억불): ('20.3Q) 129 → ('21.3Q) 182 → ('22.3Q) 215 → ('23.3Q) 239

한편, 회의에 참석한 대한상의 및 주요 기업들은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①규제 완화, ②세제·금융 지원 확대 등을 집중적으로 건의하였다. 특히, ▲일몰 예정인 투자세액공제 연장, ▲정책금융 확대 등은 여러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였다. 산업부는 기업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그 결과를 업계와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내년에도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경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설비투자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10대 제조업의 '24년 설비투자 계획을 모니터링하고,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업종별 핵심 투자 프로젝트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 장관 주재 「산업투자전략회의*」를 신설하여 매 분기 기업의 투자 애로를 점검하고, 투자 활성화 방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 산업부장관 주재, 경제단체 및 기업 참여 → 논의 내용을 산업부가 관계부처와 협의

이날 회의에서 장영진 1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선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가 중요하다"면서, "민·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내년에도 차질없이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남경모 (044-203-4210)
		담당자	사무관	박성수 (044-203-421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10대 제조업 주요 기업 투자 간담회 개요**

1. 일시 / 장소

○ ’23.11.30일(목) 14:00～15:30 / 가스공사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

* 서울 중구 소월로 10 단암빌딩 23층

2. 참석자

○ 【정부】 산업부 1차관(주재), 산업정책국장

○ 【민간】 대한상의, 10대 업종 주요기업* 등 10여명

*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석유화학, 철강, 바이오, 조선, 기계·로봇, 섬유

3. 논의 내용

❶ ’23년 설비투자 현황 및 ’24년 밀착지원 계획(산업부)

❷ 기업투자 애로 건의(대한상의)

❸ ’24년 투자 여건 및 건의사항(10대 업종 주요기업)

4. 세부 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03	(’3)	▸ 모두발언	1차관
14:03 ~ 14:08	(’5)	▸ (발표1) ’23년 설비투자 현황 및 ’24년 밀착지원 계획	산업부
14:08 ~ 14:13	(’5)	▸ (발표2) 기업투자 애로 건의	대한상의
14:13 ~ 15:28	(’75)	▸ (자유발언) ’24년 투자 여건 및 건의사항	참석자
15:28 ~ 15:30	(’2)	▸ 마무리 발언	1차관

※ 모두발언까지 공개